

박완서 소설과 ‘아파트’ 표상의 문학사회학*

—‘아파트’ 표상과 젠더 구도를 중심으로

정미숙**

<목 차>

- I. 들어가며, 박완서와 ‘아파트’, 한국적 근대성
- II. ‘아파트’ 단지의 현현, 위계적 공간구도와 도착적 젠더
- III. ‘아파트’ 구성-내부의 발견, 장소·젠더의 재구성
- IV. ‘아파트’ 대상화와 활용, 주체-젠더의 생성과 모색
- V. 나오며, ‘아파트’를 나오며

◦ 국문 초록 ◦

‘아파트’는 한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현대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거공간으로서의 아파트 의미를 건줄 때 아파트 표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파트의 소설 사회학에 줄곧 집중한 박완서의 소설을 대상으로 아파트 표상과 젠더구도와와의 관련 양상을 통해 그 구체적 전모를 살피고자 한다.

초기 소설의 경우 ‘아파트’의 변칙적 탄생과 단지의 외현이 던진 과장을 알 수 있다. 아파트가 집이 아니라 소유의 공간, 신분상승의 기호로 변질되고, 삶의 가치마저 규범화되는 가운데 아파트는 불화와 상실의 공간으로 부각된다. 변칙적 재산증식과 세속적 성공의 표상인 아파트는 기존의 부부 역할과 윤리를 희석시키고 일탈적 섹슈얼리티로 치닫는 도착적 젠더양상을 드러낸다.

중기 소설은 아파트 ‘내부’의 발견, ‘내부성’의 천착이 두드러진다. 이 경우 ‘내부성’은 아파트 내부 구조와 인물들 삶의 상관관계를 통한 천착을 말한다. 폐쇄와 개방이라는 아파트 공간의 양가적 측면을 아우르며 아파트가 이웃 간의 단절과 소외, 익명성의 표상이기보다 이웃과 더불어 자신을 성찰해 나가야 할 공유의 공간, ‘장소’라는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박완서의 여성주의가 두드러지며 젠더 재구성을 촉구한다.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35C-A00473).

** 부산대학교

후기 소설에 이르면 아파트 대상화와 활용의 문제가 부각된다. ‘아파트’가 개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장할 수 있는 매개물로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파트’가 진정한 주체복원을 도모하는 활용처, 자아실현의 기반, 노인의 연금으로 다양하게 도모되는 가운데 신/구세대, 남/녀, 노/소를 너머 세련된 젠더양식을 탄력적으로 모색한다.

I. 들어가며, 박완서와 ‘아파트’, 한국적 근대성

주거공간은 생산과 일의 장(場)인 공장과 사업장, 교육의 장인 학교와 더불어 현대적 삶을 구성하는 삼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¹⁾ 오늘날 ‘아파트’는 한국인의 지배적인 주거 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같은 주거공간의 변화는 생활 세계와 사적 영역의 조건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뜻한다. 프랑스 인류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²⁾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1960년대 이래 길과 주택으로 구성된 주거공간이 수직적인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의식과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지속되고 가속되면서 주거 지형을 바꿔놓았다. 이제 한국 사회와 아파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아파트는 주거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비롯하여 한국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에 와서 한국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개입하는 표상이 되었다. 시대에 따라 아파트는 그 사회적 함의가 달라지면서 문학 속 표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대 한국문학 속의 아파트 표상을 해석하고 설명함으로써 한국인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변화를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 한국문학 속의 아파트 표상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이지 않은 것은 집과 관련한 연구경향이 변화하는 주거양식에 착목하기보다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나 주거 공간, 장소와 경관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해 온 까닭이다.

소규모 집합주거 단지에서 대규모 단지로 바뀌고 나아가 초고층 고밀도를 지향함에 이르러 한국의 아파트는 한국사회와 한국적 근대성을 집약하는 아이콘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공간의 삶이 가지는 문제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 전체성이라는 틀로 해부함

1) 이진경, 『근대적 주거 공간의 탄생』, 소명출판사, 2000, 9쪽.

2) V. 줄레조, 김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으로써 대안적 삶의 과제나 희망의 공간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파트 표상을 통하여 한국인의 현대적 삶의 내용과 변화 양상 그리고 내재한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현대문학에서 아파트 표상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현대소설의 경우 1966년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를 필두로 70년대에 들어 오정희, 최인호, 이동하, 한수산, 조세희, 윤홍길, 전상국 등의 작품에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이르러 지속적인 탐색의 대상으로 변주된다.³⁾

현대 한국문학 속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도시소설’이라는 주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처음 등장한다.⁴⁾ 이재선은 1970년대 소설에서 생태학적 도시소설의 한 양상으로 아파트를 들면서 “획일적 구조로서의 단지공간”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획일성, 익명성, 가족의 해체, 인간관계의 공백, 근린의식 없는 군거적 고립의 공간 등의 의미를 추출하고 있다.⁵⁾ 의미 있는 첫 연구이나 아파트를 도시소설이라는 큰 범주의 하위 유형의 한 양상으로 보고 있고 그 시기 또한 한정하고 있어 본격적이라 하기는 힘들다.

통시적으로 소설 속의 아파트 표상의 변화를 읽고 있는 것으로 건축학자의 글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설은 아파트의 문화사를 서술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⁶⁾ 최근 들어 문학 속의 장소 읽기라는 관점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문학 속의 서울⁷⁾, 소설 속의 부산⁸⁾ 등의

3) 1980년에 이르러 시대 상황과 맞물려 아파트 표상이 크게 확장되진 않지만 송영, 박영한, 박완서, 강석경, 양귀자 등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자본주의적 성숙은 한편으로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의 증폭과 다른 한편으로 사적 소유 욕망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설 속 아파트 표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최수철, 이문열, 정소성, 조정래, 이창동 등 남성작가와 박완서, 서영은, 김지원, 강석경, 양귀자, 김향숙, 은희경, 김형경, 오정희, 이선, 한강, 공선옥, 윤영수, 차현숙, 전경린 등 많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소설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서하진, 신경숙, 정이현, 정미경, 김인숙, 권지예, 전경린, 이치은, 김윤영 등의 여성작가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복거일, 문순태 등 중진 남성작가들의 작품에도 나타난다.

4)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1; 최영숙, 「1970년대 한국도시 소설 연구」, 창원대대학원 박사논문, 2007.

5) 이재선, 위의 책, 293-297쪽.

6) 박철수, 『아파트의 문화사』, 살림, 2006. 28-58쪽.

7) 김재관·장두식, 『문학 속의 서울』, 생각의나무, 2007.

글들이 관련된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탐방에 의한 글쓰기라는 한계를 지닌다.

문학 연구에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지엽적으로 드러난다. 그 동안 이와 관련한 문학연구의 큰 흐름은 두 가지인데 첫째 집과 가족에 대한 연구와 둘째 장소와 공간에 대한 연구이다.⁹⁾ 먼저 전자의 경우 집을 장소성이 아니라 가족과 가문과의 연관성에서 파악한다. 문학에 나타난 가문과 가족사 그리고 가족의식 등에 대한 고찰의 역사는 오래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 가족 구성의 다원화, 부부 친밀성의 다양한 표출, 어린이와 노인 문제 등 많은 가족 문화사적 관심들을 문학을 통해 연구되어 온 것이다. 특히 90년대에 와서는 불륜의 사회학이라 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대한 탐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연구과정에 아파트 현상을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내세운 경우는 드물고, 후자의 경우 현상학적 지리학을 수용한 문학지리학 연구이다. 이-푸 투안과 에드워드 렐프 등의 이론을 수용하여 장소와 공간의 차이, 장소성과 장소상실 등의 내용을 문학작품을 통해 풀어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아파트가 추상화된 장소상실의 공간이라는 해석의 단순화가 엿보인다.

본고의 텍스트인 박완서의 소설은 ‘아파트의 문학사회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전 시기에 걸친 많은 작품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생활양식을 서술하고 있다. 박완서는 아파트의 소설 사회학에 줄곧 집중한 작가로 그녀의 소설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체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¹⁰⁾

8) 조갑상, 『이야기를 걷다』, 산지니, 2006.

9) 김정자 외,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집 그리고 가족의 문제』, 우리문학사, 1992; 류은숙,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 연구—1980년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No 7, 2002; 하창수, 『집의 지형』, 신생, 2007; 하창수, 『집의 지층』, 신생, 2007.

10) 텍스트는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1』, 『배반의 여름 2』,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3』, 『저녁의 해후 4』,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5』, 『그 여자네 집 6』은 문학동네, 2008(개정판)이고, 최근작인 『친절한 복희씨』는 문학과 지성사, 2007이다. 소설 전집 7권 안에서 아파트 표상과 젠더의 변화양상을 잘 살필 수 있는 텍스트를 엄선했다. 시기구분은 일차적으로 작가의 창작/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시대 사회사의 흐름에 따라 아파트가 재현되어 있어 유용하다. 초기(70년대 초반-80년대 초반), 중기(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후기(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로 구분되며 시기 별 텍스트표기는 원출전과 소설전집 권수로 한다. 초기: 「주말농장」(『문학사상』, 1973. 10, 1권), 「닭은 방들」(『월간중앙』, 1974. 6, 1권), 「포말의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조명한 논문 몇 편이 발견되어 주목되나¹¹⁾ 소설 몇 편의 분석에 그치고 있어 박완서 소설에 드러난 아파트의 변모를 살피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박완서 소설 전체를 고찰하여 드러난 아파트 소/제계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입성에서 생활, 그리고 아파트를 나와서 그러지는 아파트 표상을 통하여 시대와 문화사를 통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파트 표상을 통하여 한국적 근대성을 해명하고 주거공간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의식의 변화와 삶의 양상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현대 한국문학 속의 아파트 표상을 추적하여 여기에 내재한 생활과 의식의 변화 과정을 읽어낸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에 보다 내밀하게 접근하기 위해 아파트 표상과 ‘젠더’와의 긴밀한 상관관계, 변주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상은 심적 형상을 가리킴과 동시에 구체적인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는 개념으로 이 두 가지 상(相)에 걸쳐 존재하는 것을 재현전화(再現前化)하는 것을 말한다. 표상은 시대와 사회 문화에 따라 표상 작용을 달리한다고 하겠다.¹²⁾ 아파트 표상이 작중인물의 위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를 가족, 세대, 성별의 복잡다단한 양식을 매개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젠더’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하려 한다.¹³⁾ 아파트 표상과 젠더의 상관적 고찰은 아파트가 남녀

집」(『한국문학』, 1976. 10, 2권), 「낙도의 아이들」(『한국문학』, 1978. 1-2권), 「황혼」(『뿌리깊은 나무』, 1973. 3, 3권), 중기: 「로열박스」(『현대문학』, 1982. 1, 3권), 「무중(霧中)」(『계의 문학』, 1982. 1, 3권),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문학사상』, 1983. 3, 3권), 「울음소리」(『문학사상』, 1984. 2, 4권), 「저문 날의 삽화 2」(『또 하나의 문화』, 1987. 4, 5권), 「가(家)」(『현대문학』, 1989. 11, 5권), 후기: 「티타임의 모녀」(『창작과 비평』, 1993. 여름호, 5권), 「공놀이 하는 여자」(『당대비평』, 1998. 여름호, 6권), 「마흔 아홉 살」(『문학동네』, 2003. 봄호, 7권), 「춧불 밝힌 식탁」(『춧불 밝힌 식탁』, 동아일보사, 2005. 4, 7권), 「그래도 해피 엔드」(『문학관』 통권 32호, 한국현대문학관, 2006. 겨울호, 7권)이다. 이후 인용할 때는 본문에 텍스트의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 11) 강인숙, 「박완서론—「울음소리」와 「닭은 방들」, 「포말의 집」의 비교 연구」, 『인문과 학논집』 26집, 건국대학교, 1994; 오창은, 「아파트 공간에 대한 문화적 저항과 수락—박완서의 「닭은 방들」과 이동하의 「홍소」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33집, 2005. 박철수, 「대중소설에 묘사된 아파트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건축학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1호, 2010. 1.

- 12)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18-20쪽.

- 13) 젠더는 알듯이 섹스-섹슈얼리티-젠더가 아우러지며 형성되는 개념이다.(Judith Butler,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노소의 위상과 섹슈얼리티, 그리고 젠더인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변화시켰는가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라 할 수 있다.

박완서는 그 어느 작가보다 빈번하게 장소와 공간, 집과 아파트 등의 문제를 서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녀의 소설에서 전통적인 주거공간이 아파트로 변전되는 시기는 1970년대를 다룬 작품에서 비롯한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 까지 아파트와 삶의 변화를 천착하고 있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해 크게 초기(70년대 초반-80년대 초반), 중기(80년대 중반-90년대 초반), 후기(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로 나눌 수 있다. 전 시기에 걸쳐 박완서는 아파트와 젠더를 상호 조망하면서 아파트의 삶이 지니는 한계와 그 한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나고자 애써는 인간 군상의 양상을 제시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가 그 어떤 대안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 ‘아파트’ 단지의 현현, 위계적 공간구도와 도착적 젠더

초기 소설의 경우 ‘아파트’의 변칙적 탄생과 단지의 외현이 던진 파장을 알 수 있다. 아파트가 집이 아니라 소유의 공간, 신분상승의 기호로 변질되고, 삶의 가치마저 규범화되는 가운데 아파트는 불화와 상실의 공간으로 부각된다. 변칙적 재산 증식과 세속적 성공의 표상인 아파트는 기존의 부부 역할과 윤리의식마저 희석시키고 일탈적 섹슈얼리티로 치달는 도착적 젠더양상을 드러낸다.

박완서 초기 소설에 표상된 아파트는 한국적 근대화의 바로미터이다. 부족한 택지와 땅투기, 치솟은 땅값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개인주의, 핵가족주의 등의 근대적 의식변화와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확산된다. 치솟은 수직모양에 동일한 구조를 가진 독특한 모양의 새로운 주거공간인 ‘아파트’는 전근대와의 결별, 구세대적 생활방식과의 분리, 차별을 표방하면서 근대화의 표상이 된다. 이로써 가옥/아파트, 전통/근대, 구세대/신세대, 대가족/핵가족, 동일자/타자로 구분되며 긴장과 대립의 구도로 배치된다.

「낙도의 아이들」은 ‘아파트’ 탄생의 기원과 기밀을 알게 한다. 화자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대학강사로 결혼 삼 년 만에 ‘무릉 신시가지’에 이십 년 연부(年賦)의 평민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하였으나, ‘복부인’인 아내는 빚까지 얻어 남

아도는 아파트를 한꺼번에 서너 채나 계약하고 미처 중도금도 치르기 전에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전매를 통해 큰 부를 얻는다.¹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땅 값과 아파트값의 폭등, 부동산 붐은 아파트 평수로 사람을 재단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갖게 한다. 식구와 집의 크기와의 관계를 몸과 옷의 크기와 같이 생각한 ‘단순계산법’의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로 치부되는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무릉동이야말로 낙도였다. 이곳의 땅은 시시하게 베풀거나 감자 알맹이 따위를 번식시키지 않았다. 직접 황금을 번식시켰다. 그 황금은 그 땅을 땀흘려 파는(掘)사람의 것이 아니라 파는(賣)사람의 것이었다.(309쪽)

무릉 신시가지는 아파트 단지와 고급 주택단지와 상업단지와 교육행정도시로 엄격하고도 편리하게 구분되어 있고 모두 택지 개발 중이다. 이 단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증권회사 건물’과 조용하는 부동산 사무실은 “유한마담의 응접실처럼 퇴폐적이고도 유혹적”이다. 퇴락하고 조잡한 구시가지는 다만, 썩은 강 건너로 안개 같기도 하고 먼지 같기도 한 불투명한 잿빛 속에 잠긴 채 정체되어 있을 뿐이다. 이 둔갑의 단지에서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의 교육’과 ‘명예(허영)심’에 대한 집착이다. ‘나’역시 물질적 풍요의 공간인 ‘아파트’와 아내가 불러주는 대외적 호칭인 교수님이란 기호에 간혀 소시민적 삶에 안주하려 한다.

서재의 커튼을 외눈으로 밖을 살필 수 있을 만큼만 민다. (...) 설사 그들이 정답게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손 치더라도 나는 그들 사이를 크리넥스통과 연관지을 수 있는 외설스러운 상상으로 의심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아내에 대해 그 정도의 인간적인 불안이나 의혹조차도 품을 수 없을 만큼 아내에 대한 나의 한탄과 열등감은 철저하다.(304-305쪽)

위 예문은 ‘아내’와 무릉 부동산 탁사장이 한 차에 타고 ‘답사’를 떠나는 광경을 화자가 커튼 뒤에서 숨어보는 장면이다. 아내의 경제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화자는 남성/남편의 권리를 선불리 내세우지 못한다. 갈아엎고 새로

14) 1960년대와 70년대의 주택 시장은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개발과 성장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너도 나도 복부인’으로 1970년대 초 반포아파트 분양 때부터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259쪽)

짓는 건설의 시대에 속한 그들에게, 크리넥스통의 외설적 거리가 언제 무화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화자가 학문적 열정을 담아 사용하던 ‘답사’라는 용어를 아내가 투기할 땅을 살피러 다니면서 도용하고 탁사장이 부동산학 석사를 받고 버젓이 ‘교수’라는 호칭을 취했듯이, ‘아내’가 내 것이 아닌 네 것이 되는 것 역시 시간문제일 듯 위태롭다.

「주말농장」의 ‘주말농장’은 소위 중산층이라고 믿는 같은 아파트 여자들이 그들의 동질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싼값에 공동구매하기로 한 시골에 있는 농장을 말한다. ‘주말농장’은 이곳 여자들 간의 경쟁과 질투를 승화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완충지대와도 같은 것이다. 소설은 ‘주말 농장’을 갖기로 합의하고 그곳을 둘러보며 ‘야유회’란 이름으로 시간을 갖는 아파트 여자들의 시점과 이곳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장과 더불어 일상을 사는 농사꾼 ‘만득’의 시점을 대비하는 가운데 ‘아파트’를 표상한다.

아파트 단지의 환함, 정결, 선명, 세련된 외부표상을 그대로 삶 속으로 이어야 문화인이라고 믿는 아파트 여자 ‘화숙’은 ‘문화인답게’ 아침 식사를 빵으로 하나, 곧 느글느글한 속을 식혀줄 열무김치를 짹째 먹어 치운다. 이는 화숙의 병리적 증상이다. “다다다다 좌우상하로 수많은 이웃을 가졌으면서도, 어찌다 전화의 ‘쓰-’ 소리만 안 들려도 고도에 유배된 듯한, 지독스레 절망적인 단절감”(149)에 시달리고 “늘 엇비는 듯, 도청당하는 듯, 창은 물론 두터운 벽에서까지 못 눈과 귀를 의식해야 하는 괴로움”(150)을 안고 사는 그녀의 상태는 타인 의식, 경쟁심에서 비롯한 것으로 아파트 여자들의 공통적 증상이다. 아파트는 그녀의 의식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공간-기계’¹⁵⁾인 셈이다. ‘우울과 자폐’¹⁶⁾에 시달리는 여자들이 동류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구입할 3000평 주말농장 현장 답사를 위한 야유회는 무시무시하고 정열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지랄’로 드러난다.

농사꾼 ‘만득’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정직한 땅”을 믿으

15)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그린비, 2010, 118쪽.

16) 일본에서 1960년대 처음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들을 단지족, 단지쳐라 불렀다.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여 얻은 것은 우아한 여유시간과 개별공간의 편리성이었지만 그 대가로 담장 밖의 사람들과부터 자신들과는 다른 신인류로 취급되었으며 이웃과 유리되고 도시와 격리된 채 우울과 자폐의 공간을 돌려받은 것이다.(박철수, 『아파트의 문화사』, 살림, 2006. 12-13쪽)

며 살려고 하나, 퍼컬레이터에서 원두커피가 알맞게 끓여졌을 때의 ‘구수하고 세련된 향기’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이미 도시화된 인물이다. 그는 여자들의 ‘아름다운 허위’를 “능욕”하고 싶어 한다. ‘능숙’하고 ‘기교’적일 그녀들은 “땅덩이처럼 미련하고 정직하게밖에 반응할 줄 모르는 아내와는 다르리라”고 믿는다. 도시/시골, 아파트/땅, 여자/아내는 위계적이며 동시에 위반적 설정이다.

아파트 여자들의 요사스러움을 접할 때 만득의 남성이 사납게 전율한다는 것은 단순한 성적 욕망을 말하지 않는다. ‘도시-아파트-여자-세련’, ‘시골-땅덩이-아내-미련’으로 분류, 대비되며, 그는 자신의 삶을 ‘어쩔 수 없이 걸쭉한 상복’으로 폄하한다. 도시에 대한 욕망이 일탈적 성적 욕망, 나아가 부부 윤리를 한 순간에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착적 젠더 양상을 보인다.

『닭은 방들』의 ‘나’는 7년 만에 친정에서 분가하여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입주한다. 난방 잘되고, 시설 편리하고, 외출하기 쉽고 독립성 확보가 좋은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 아파트 생활의 선배격인 앞집 철이 엄마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의지한다. 실내장식, 가구구입, 요리법, 다이어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이 비슷하거나 똑같아지는데, 서로 닭는 것에 지쳐가고 싫증내고 있으나 또한 둘은 다른 점이 있음을 견디지 못한다. 닭음에의 싫증으로 진저리를 쳐갈 때쯤 ‘나’는 철이 엄마가 발화한 “짐승 같은 새끼”에 촉발되어 내 남편과 다를 것 같은 철이 아빠와 성관계를 갖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와 남편의 섹스는 너무 닭아 화자는 간음을 하고 있다는 죄의식도 쾌감도 느낄 수 없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시기에 남성은 바깥일에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을 쏟았기 때문에 가정 일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가정의 의사결정자로서의 권한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¹⁷⁾ 남성들은 가혹한 노동력 착취와 경쟁에 시달리며 밖에서 겉돌다 ‘창백하고 냉혹한, 아파트 살인범’으로 변해가고 여자들은 경쟁하듯 아파트의 외양을 치장하며 신경증적 질환을 보인다. 침실에서 화합할 부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죄의식도 쾌감도 없는 도착적 섹스는 그 자체로 외화내빈인 아파트 생활의 심각한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다.

『포말의 집』은 ‘성냥갑’으로 표상되는, 아파트를 통해 군부독재 시대의 지배논리와 상동(相同)인 아파트 생활을 빚대며 풍자한다. ‘혼식 장려’를 주장하는 국가와 학교의 요구에 미처 보리밥을 준비하지 못한 ‘나’는 불안과 공포를 느낀

17) 전남일 외, 앞의 책, 65쪽.

다. “밭밑에서 계단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과 함께 난간과의 마찰로 찌릿찌릿 열과 전기가 나면서 심장도 날카롭게 찌릿찌릿”함을 느끼며 상가를 달리고 다녔으나 끝내 보리쌀을 구하지 못한다. 그러다 잘못 찾아든 404호에서 “얼음처럼 얼려 있던 찬 보리밥”을 얻어온다.

검사를 위한 도시락이 음식일 수 없듯이, 남을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장만한 집 역시 가정, 장소가 되지 못한다. 남편은 아이 교육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미국에 체류 중이고 화자는 자녀 교육을 비롯한 집안일 모두를 책임지고 있다. 이 시대 중산층 가정에서는 두 사람의 가장이 있다는 표현을 할 정도였다. 이는 전통 가부장 사회가 산업사회와 만나면서 이른바 모권 가족으로 변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¹⁸⁾된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와 몇 마디도 하지 않는 아들로 힘들어, 수면제를 먹고야 잠이 들 수 있는 모순되고 불행한 삶은 마침내 일탈에 대한 욕구로 변질된다.

‘포말의 집’이란 모델 하우스를 전시하며, 미래의 주택을 주택의 직선으로부터 해방하자는 청년에 대한 반발심에서 촉발하여 ‘나’는 마침내 돈 많은 유한 마담인양 과장하고서 젊은 청년을 유혹하고 그와 일탈적 정사를 감행하고자 한다. 이는 아파트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과시하고 그를 통해 보상받고 있다고 느끼는 있는(느끼고 싶은) 자신의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¹⁹⁾ 그러나 ‘꿀 같은 부정’의 꿈도 포말처럼 수포로 흩어지고 만다.

「황혼」은 아파트 내 고부 사이의 의례성, 노인 소외의 정형성을 강조한다. “강변아파트 7동 십팔층 3호에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남편과 두 아이가 살고 있었다.”로 시작하는 소설은 아파트 안의 질서가 젊은 여자, 며느리를 중심으로 배치됨을 알게 한다. 늙은 여자/젊은 여자, 구식/신식, 음흉/합리적, 노인네/사모님, 안방/골방으로 자리매김된다.

집의 중심이나 어른이 시어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파트가 신식인 삶과 다를 바 없다. ‘골방’에서 창밖의 어둠이 군청색으로 남빛으로 엷어지면서 창호지의 모공을 통해 청량한 샘물 같은 새벽바람이 일제히 스며들던 옛집의 새벽을 회

18) 위의 책, 같은 쪽.

19)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중산층 주거임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그들의 선호를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 고급 재료와 시설 설비로 호화롭게 꾸며진 모델하우스는 서구식 생활을 갈망하고 주거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은 중산층의 욕구를 잘 반영했다.(의 책, 146쪽)

상'한다. 다용도실에서 나는 세탁기 소리에 힘들어한다. 이는 늙은 여자는 어른도 여자도 아니라 주변적 존재로 밀려난다.²⁰⁾

III. 아파트 구성—내부의 발견, 장소·젠더의 재구성

중기 소설은 아파트 '내부'의 발견, '내부성'의 천착이 두드러진다. 이 경우 '내부성'은 아파트 내부 구조와 그곳에 사는 인물들의 구체적인 삶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천착을 말한다. 아파트 구조의 부분적 구성과 소설적 주제를 연결하는 서술전략이 돋보인다. 폐쇄와 개방이라는 아파트 공간의 양가적 측면을 아우르며 아파트가 이웃 간의 단절과 소외, 익명성을 표상하기 보다는 이웃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²¹⁾ 이는 여전한 '젊은 여성'의 주도적 공간우위성, 젠더 편향성을 넘어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전통적 '집(가)'의 개념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울음소리」와 「저문 날의 삽화」는 '방음'이 잘되지 않는 아파트 구조적 특성과 아파트 간의 '공유공간'을 통하여 이웃과 내 삶을 알고 성찰하는 가운데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무중」과 「로열박스」는 아파트 층수와 섹슈얼리티, 존재양상을 탐구한다. 「가(家)」와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은 아파트의 장소성을 통하여 아파트가 우리들의 공간, '집'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울음소리」에서 아파트는 '이물감'으로 표상된다. 시어머니는 아파트의 크기와 "아래 위 줄행랑 같은 셋집" 구조에 놀란 후 "엄청나고 고독한 이물감"을 안고 치매에 걸린다. 아파트 입주 후 낯은 첫아가가 상상도 못한 뇌성마비였고 아이는 낯은 지 삼주 만에 죽는다. 남편이 관여하는 반도체 기술개발, 초극미한 세계 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비극적 사건은 공포로 남아 부부는 이물감을 느끼게 하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는 관계를 갖지 않는, 비생산적 관계로 치닫는다. 그녀는 우울과도 같은 잠에 빠져 윤패된 듯 사나, '아파트'는 이웃

20)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은 따로 정리한 바 있다.(정미숙·유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 시학」, 『한국문학논총』 54집, 한국문학회, 2010. 4)

21) 투안에 의하면 '공간'은 움직이며 개방이며 자유이며 위협이다. 장소는 정지이며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인식처이며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중심이다.(Yi-Fu Tuan,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출판사, 1995, 25쪽)

과 외부에 대하여 결코, 분리될 수도 안전할 수도 없는 곳이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실내로 들어설 수 있는 서민 아파트의 좁은 복도구조는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만취한 남자가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는 취약한 곳이다.

아파트의 특징인 공유 공간은 소통의 기반이기도 하다. 앞집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뛰쳐나간 사이 양쪽 집 공유 공간(복도)에 서서 불에 텐 것처럼 다급한 울음소리를 지르며 울던 아이는 그녀가 회피하던 본능적 모성애를 일깨운다. 이후 옆집 아이에 대한 신경이 풀리며 환청을 겪기도 한다. 이는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다.²²⁾ 저녁 무렵 맛은 편 아파트를 바라보며 이웃에 대한 상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초기소설에서 보였던 이웃에 대한 불안, 경쟁과는 다른 구체적인 삶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앞 동의 불빛이 대여섯 개 남아있었다. 입구가 다섯 개 달린 오층 아파트니까 열 집에 하나 꼴로 수험생이 있는 걸까? 아니면 새벽밥을 짓는 불빛일까?” 관심을 갖고, 앞집 아이의 손목을 잡고 꽃밭을 거닐며 아파트 화단의 장미, 분꽃, 맨드레미, 기생초, 도라지꽃, 백일홍 등 갖가지 꽃 이름과 그 정확한 빛깔을 알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울음소리’에서 촉발된 이웃 아이와의 관계 맺기는 화자에게 ‘행복한 공감’으로 이어지며 그 끝에 남편을 다시 만난다. 이는 생 성적 부부 관계-수행을 예감하게 한다.

『저문 날의 삼화 2』의 소설 공간은 ‘요양원’과 ‘아파트’로 드러나며 주제를 분명하게 한다. ‘콘도 같은 요양원’과 ‘요양원 같은 아파트’에 간혀 사는 작중인물들은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을 지나온 젊은이들의 헤어날 길 없는 상처를 드러낸다. 화자의 아들은 운동권 출신으로 심한 고문을 당하고 풀려 나온 후 정신을 잃고 요양원에 머물고 있다. 소설은 아파트 외/내부 정경의 유사한 표상을 통해 엄혹한 시대의 논리를 제시하고 그와 무관하게 생명 의지를 펼쳐야 한다는 화자의 저항적 시선으로 시작한다. “저 멀리 보이는 동회 옥상에 꽃힌 태극기와 새마을기와 시마크가 들어있는 청색기. 무자비한 채찍질을 연상”하는 아파트 외부의 정경을 지나 시선을 내부 배란다로 옮긴다. 베고니아 화분을 보며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특별한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해 하며 ‘베

22) 강인숙은 앞집 아이를 보호해 주지만 이웃 관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으나, 아이로 인해 가족, 이웃, 부부에 대한 화자의 관심이 점진적으로 깊어졌다는 점에서 아이는 전반적 관계 개선을 촉발시킨 매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1997, 158쪽)

란다 창문'을 열어젖힌다.

아파트 위층에는 제자 가연이 운동권 출신 남편과 살고 있다. '운동권'²³⁾ 출신인 제자 남편은 처가에 의지하며 한 푼 수입 없이 오륙 년째 소위 운동만 하면서 동지를 모아들이며 숙식제공을 한다. 그들의 아지트인 아파트는 가장의 역할을 방기하며 점점 날카로워지는 남편 때문에 '황폐'하다. 가연의 남편은 '강력하게 지배할수록 좋다는 식'의 부패한 지배 논리를 그대로 그녀에게 적용한다. 자신과 동지들의 시중을 위하여 가연이 취직하고자 하는 것도 극구 말리며 담뱃불로 지지는 폭력도 서슴지 않는 그에게 아파트는 가정이 아닌 요양원인 셈이다.

'나'는 아들과 같은 운동권 출신인 가연 남편에게 연민을 느껴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망설였으나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의 향방이 마치 방향 감각을 잃은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느끼며 대오각성한다. 아파트에 갇혀서 정의와 진리에 대한 확신도, 현실감각도 갖추지 못한 두 남녀와 어머니/선생님의 경계에서 정확한 조언을 하지 못하는 화자는 같은 것이다. 이제 화자는 어머니가 아닌 같은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가연에게 조언한다. "도대체 제 계집을 좀처럼 다루면서 일말의 연민도 없는 자가 민중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믿냐. 내조도 좋지만 가짜를 내조한다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잖나?" "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를 대등한 입장에서 바로 보기 위해 자립을 하란 말야.", 남편을 벗어나 세상 속에서 가연이 자신을 찾기를 촉구한다. 방향을 잃은 소리 같은 말, 독백이 아닌 대화를 통해 성숙한 삶을 모색하길 바란다. 아파트 구조 같은 판에 박힌 젠더구조 남성/여성, 공적/사적, 관념/물질, 대외/내조 등의 관념적 위계를 허물고 재구성을 재촉한다.

'무중', '로열박스'는 아파트 층수·평수와 섹슈얼리티, 젠더관계를 조망한다. '로열박스'의 '선회'는 "십사층 아파트에서 십층, 정남향, 코너도, 엘리베이터 박

23) 1960년대 이후 70, 80년대에 이르기 까지 과히 (사회)운동의 시대였다. 60년의 4.19, 80년의 이른바 '서울의 봄' 및 86년 6월의 직선제 쟁취를 위한 민주화 운동과 뒤를 이은 7-9월의 노동자 대투쟁 시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나뉘보면, 1960-70년대는 민주화운동의 궤적과 민중운동의 대두 1980년대와 그 이후는 민주화운동의 종언과 민족 민중운동의 과제를 남긴 시기였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열정과 순수성, 지사적 비분과 정의감에 불타는 학생들이 주도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275-300쪽)

스 옆도 아니고, 녹지대가 넓어 전망 좋고 그런 위치”에 있는 ‘로열박스’(royal box)에 산다. 남편은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위해 요양원에 있고 혼자 남겨진 그녀 역시 정신과 치료 중이다. 모든 것을 ‘성적 억압’으로만 해석하려 드는 의사에게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그녀가 계속 정신과를 찾는 이유는 잃어버린 정답 혹은 자신을 찾기 위해서이다.²⁴⁾

그녀의 활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친다. 그녀는 남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정전이 되어 그 속에 갇히게 되는 성적 상상을 즐길 때 활기를 잠시 되찾으나 정작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아파트 안 베란다에선 화초가 죽어가고 생활비는 등기우편으로 받고, 계획 없는 쇼핑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녀를 찾는 사람은 보험 들어달라고 찾아오는 친구밖에 없다. 그러나 그 친구마저 선회를 진실로 대하지는 않는다. “너 그거 몰라? 십년 만 있으면 아무리 호화아파트도 빈민촌이 된다는 거.”라며 부자 친구에 대한 저의를 드러낼 뿐이다. 선회는 그저 ‘로열박스’에 사는 돈 많은 젊은 여자일 뿐이다. 서로가 서로의 박스를 넘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넘을 수 없다. 다만 시아버지만이 한 단지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가족임을 유념하고 있으란 경각처럼 열시 정각에 전화 대신 ‘인터폰’으로 안부를 전하고 시아버지의 전정어린 육성에 위안을 얻을 뿐이다.

‘무중(霧中)’은 로열박스와 달리 투자가치가 가장 낮은 1층 소형(小型)에 사는 남녀를 포착한다. ‘나’는 나이 들고 돈많은 유부남(‘아빠’)과 ‘떴쩍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젊은 여자이다. 여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형 고급맨션 단지에 십팔 평짜리 한 동이 ‘혹처럼 붙어있는’ 자신을 닮은 그 아파트를 원한다. 그녀에게 아파트는 ‘불박이 여관’과 ‘방갈로’와 다를 바 없는 일종의 ‘은신처’일 뿐이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면 직사할 것 같은 고층에서 살 수 없다. 그녀에게 베란다는 발각될 때 달아날 비상구이다.

여자는 여인숙의 방문처럼 다닥다닥 붙어 방음이 잘 안 되는 이곳에서 옆집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를 보기위해 ‘나’는 베란단을 이용한다. 가끔 그를 만날 수도 있는 베란단은 이웃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곳이고, ‘나’의 놀이터이기도 하다. 결국, 남자는 나의 집요한 관심에 부담과 위기를 느껴 자수를 하고 만다. 남자는 아파트 열쇠를 교묘히 사취해서 남의 집에 숨어 사는 중이

24) 김서영, 『프로이트의 환자들』, 프로네시스, 2010, 27-28쪽.

있고 오년이나 피해 다니던 범죄자임이 밝혀진다. 젊은 여자의 관심이 쏟아지는 아파트는 더 이상 남자의 은신처가 될 수 없었다.

박완서 소설에서 ‘아파트’의 주요인물은 여성이다. 이는 전형적인 젠더 공간적 배치라 할 수 있다. 소위 남성/여성, 공적/사적, 바깥/안, 직장/가정, 일/여가, 즐거움, 생산/소비, 독립/의존, 권력/권력의 부재로 정의될 때²⁵⁾ ‘아파트’는 젊은 남성이 숨어 있기에 부적절한 곳이다. 더구나 주민 ‘통제를 위한 기구’인 ‘반상회’²⁶⁾를 왕성하게 열었던 70년대의 풍경 속에서 아파트는 숨어 있기에 적절하지 못한 곳일 수 있다.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가(家)」는 아파트가 젊은 세대, 핵가족만의 공간임에 문제를 제기한다. 엘리베이터/계단, 환영/실제, 요설/진실의 간극을 통해 아파트가 실상 우리들의 공간, 「집」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에서 화장품 회사의 광고문안 전담 카피라이터인 「그」의 성공은 ‘약혼자의 살결 감촉’에서 촉발된 것이다. 지방의 초급대학 출신인 데다 아이디어 하나 변변하게 내지 못하던 그는 “마녀의 살결, 야드르르 로션이 어떨까?”란 고백으로 일약 승진의 궤도에 오르며 성공의 상징인 지금의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다. 그의 성공이 위태로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것과 어머니 아파트 입성은 거의 시기를 같이한다. 남의 눈을 의식하여 만든, 아이들의 정서와 효도교육의 장으로서 한 몫을 단단히 하던 ‘할머니방’이란 기표에 실제, 주인이 생긴 것이다.

그는 어머니가 아파트를 뛰어 내릴 듯 못 견뎌하며 ‘닭장’같은 아파트를 곧 떠나기를 바라나, 어머니는 아파트를 ‘극락’이라 부르며 이 ‘극락’같은 곳에 남은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를 청한다. 그는 아파트를 ‘닭장’이라고 외치며 기사회생의 요양수를 노린 것이나 실패한다. 요설로 세상을 뒤흔들던 그가 어머니 한 분의 설득에 실패한 것이다.

부르디외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세계와의 관계 및 그 세계 안에 있는 적절한 장소와의 관계는 그가 타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는 공

25)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 2010, 40쪽.

26) 반상회라는 이름의 주민 조직이 처음 생긴 것은 1917년 일제가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였다. 광복 후 잠시 중단되었으나 1976년 정례 반상회의 날(매달 25일)을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주민조직은 주로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 요즘은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 의사소통의 매개체,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간과 시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몸을 당당하거나 보류된, 확장적이거나 압축적인 태도나 몸동작을 통해 주장한다. 어머니는 의연하고도 당당하게 안주인 노릇을 수행하며 이곳이 당신이 머물 장소임을 보여준다. ‘닭장’의 금구기를 통하여 경계를 짓고 어머니를 아파트에서 제외하고자 했으나 실패한다. 장소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정성 있는(authentic)’ 또는 ‘전통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대신 장소는 거기서 교차하면서 장소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는 사회공간적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²⁷⁾ 소설은 아파트가 우리들의 집, 열린 장소가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가’에 이르면 ‘아파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아파트는 핵가족과 개인주의를 상징하는 젊은 남녀의 공간으로 암암리에 표방된다. 그럴 때 아파트는 가족의 시간, 집의 역사와 무관한 공간, 그들만의 장소일 뿐이다. 곧 결혼할 ‘성구’는 좁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상태에서 독립을 할 여유가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도 불편할 듯하여 고민에 빠져 있다. 그런 와중에 늦둥이 덕에 집도 절도 다 잃은 외할머니가 오시고 성구는 며느리에게 두 분을 모실 수는 없다는 명분을 세울 기회로 삼으려 하나, 용이하지 않다. 그러던 이른 아침 성구가 아파트 일층 보리밭 화단에 산발한 머리를 하고 엉마처럼 널브러져 있는 외할머니를 발견(착각)하고 할머니를 세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십삼층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외할머니(교하댁)’가 어떻게 집을 사고 확장하고 사수하다 끝내 상실하게 되었는가와 조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교하댁(성간난)이라고 불리던 할머니는 고향 사람들에게 ‘도둑년’ 소리를 들으며 집을 장만한 뒤 남편이 죽을 지경이 될 때도 팔지 않고 집을 지켜낸다. 50-60년대 인플레이션 백평의 대지만 있어도 땅부자 소리를 들을 시절 ‘파출소에서 눈감아주면 허가 없이 얼마든지 방을 달아낼’ 때 끝없이 하꼬방을 지어 부를 추적한다.²⁸⁾ 그리고 막내 외삼촌이 장가 갈 때 오십 평 이층 양옥을 마련해

27) 린다 맥도웰, 앞의 책, 26-27쪽.

28)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이동현상으로 도시의 셋집이 필요했을 때 도시형 한옥이 등장했고 문간채는 주인 식구가 거주하면서 세를 주기도 했다. 광복 이후 주택공사의 각종 주택사업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지속되었다. 이미 60년대부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은 홑집에서도 셋집을 줄 수 있도록 부엌공간이 별도로 마련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규에서는 단독 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

주었으나 결국 외삼촌의 무능으로 축소되다 강남의 조그만 전세 아파트로 남는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선택한 그곳에 할머니의 공간은 없다.

성구가 인간의 창자 같은 계단을 돌아 만난 할머니와 집의 곡진한 역사가 얼마나 진정성을 발휘하며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독립된 아파트에서 싱그러운 신부랑 신혼의 단꿈을 펼치고 싶은 그의 욕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파트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가’의 연장이라는 사실이다.

IV. 아파트 대상화와 활용, 주체: 젠더의 생성과 모색

후기 소설에 이르면 박완서의 아파트 표상은 일층 새로워지고 깊어진다. 초기, 중기에 걸쳐 아파트 외부/내부를 두루 조감하고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작가는 이제 아파트를 너머 거리를 두고, 아파트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파악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아파트 활용방안과 세련된 젠더양식을 탄력적으로 모색한다. ‘아파트’가 자신의 정체성을 냉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매개물로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구세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현실적 등가물인 아파트는 이제 진정한 주체복원을 도모하는 활용처, 자아실현의 기반, 노인의 연금, 그리고 독립된 공간으로 드러난다. 아파트는 또 다른 투자가치를 가진 대상물로써 아파트의 한 덕목인 환금성이 강조되는 점도 주목된다.

『티타임의 모녀』는 삼층집 옥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시누이의 사십 오평 짜리 아파트로 옮겨 살게 되면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나’의 이야기이다. 소설엔 티타임을 갖는 친정 엄마와 화자, 두 여자만 등장하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 아들은 숨은 권력자처럼 어머니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초인종 소리만 나도 어딘가로 숨기 바쁜 친정어머니는 가난과 굴종에 길들여진 파출부이다. 남편의 운동권적인 속성에 매달려야만 겨우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위치 또한 불안하긴 마찬가지이다. 우연하게 들어와 살게 된 아파트는 그간 가려지고 봉합되었던 계급 학력 물질의 격차 등을 드러내는 낯선 ‘공간’일 뿐이다.

트만을 합법적인 주거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었다.(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 476쪽)

그러나 어머니는 “에미 애비한테 버림받고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그게 살로 가는 줄 아냐? 그건 다 헛거야, 헛거.”라며 당당히 주장한다. 여기서 ‘헛거’²⁹⁾라는 말은 예사롭지 않다. 자칫 가족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그이와 지훈이를 불러내는 소리가 있는” 이 아파트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당장 포기하고 떠나야 할 곳이다. 아파트 혹은 물질만능주의에 주눅들거나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집,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공놀이 하는 여자』의 ‘아란’은 고시에 네 번 떨어진 애인을 둔 서른 살 미모의 여자이다. “열 평 남짓한 영세민용 다세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그녀는 “미모뿐 아니라 가난까지 겸비”했다. 아란이 주눅들지 않고 뽐뽐스러울 정도로 한 회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범고시 합격생과의 결혼 청첩장을 이 직장 에다 돌릴 때 찬탄과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를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매혹에 있다. 아란의 이러한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은 ‘침의 딸’이라는 자신의 출생성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란은 어머니와의 차별과 결별을 결혼이란 형식을 통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다 진회장(아란의 생부)이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던 아파트를 아란에게 유산으로 남기자 모든 것이 달라진다. 아파트는 삼억 오천의 현금, 한 달에 사 오백(적어도 삼사백)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항산(恒産)으로 돌아온다. 소설은 아란이 이 돈을 가지고 유학을 가겠다는 결심으로 마무리된다. “개천에서 난 용의 조강지처가 아니라. 너에게 매달린 너의 여덟 식구만 해도 버거울 테니. 이제 개천 바라기에서 빠지겠노라고” 선언하는 아란은 ‘결혼-조강지처-아파트’로 연결되는 기존의 모드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것이다. 그녀는 차별화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자 한다. 구멍에 간헐 탄력을 잃고 있던 놀이터의 멸절한 공을 꺼내어 밖으로 던지듯 자신을 다시 세상 밖으로 던지고자 한다. ‘아파트’는 살지 않아서 살맛을 찾게 하는 무궁한 재원(財源)이다. 아란은 이제 삶의 창발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소를 생성하는 노정(trajet)에 있다. 창발적인 것은 유동성을 배경으로 하여 사람, 물자, 용역의 복합적인 연결에서 생겨나는 개방성과 이질성을 모두 갖춘 동적인 관계의 총체이기 때문이다.³⁰⁾

29) 서울대학교 관악초청강연, 『박완서—문학의 뿌리를 말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78쪽. 박완서는 대담 중에서 도시의 아파트, 차, 불빛들이 현실 같지 않고 ‘헛것’ 같다고 말한다.

30) 요시하라 나오키, 이상봉 신나경 역, 『모빌리티와 장소』, 심산, 2010, 300-301쪽.

「마흔아홉 살」은 시부모임의 이혼으로 마흔아홉 살에 졸지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된 화자 카타리나를 중심으로 아파트 삶의 새로운 권력 구도를 포착하고 있다. 시대에 따른 가치관, 삶의 양식 변화는 카타리나의 시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친 까닭인지 두 분은 집을 팔아 재산을 반반 나누고 시어머니는 딸집으로 시아버지는 아들집으로 나눠 살게 된다. 앞에서 살펴 본 노인들의 경우 자식 집에서 동거할 경우 골방에 갇혀 윤택된 생활양상을 보인 것과는 확연히 다른 구도를 보인다.³¹⁾

시어머니는 대학교수인 딸집에 머물면서 딸의 약점(주부 역할)을 커버해주는 일을 보람으로 삼는 까닭에 딸의 감사와 환대 속에 잘 살고, 시아버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카타리나에게 섬김을 받고 산다. 시아버지의 존재의미는 크게 부각된다. 골방을 사용하나 그는 경제력과 젊음은 처세술로 자신의 자리를 넓히고 있다. 그는 며느리에게 요구하고, 댓가과 수고비를 세련되게 치루면서 며느리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정립해 간다.

젠더는 어느 곳에서나 내연(內燃)하지만 젠더의 작동은 조건적이다. 우리는 커피를, 돌보는 자, 돌봄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에 지속적인 흥정과 협상을 발견할 수 있다.³²⁾ 그렇다고 카타리나의 분열이 일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울컥 부아가 치밀어 오르면 시아버지의 팬티를 내동댕이친다. 노력중이나, 아파트-핵가족이란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한 까닭인가? 「촛불 밝힌 식탁」과 「그래도 해피 엔드」에는 부모와 자식이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촛불 밝힌 식탁」은 박완서 소설에서 보기 드문 노인 화자 ‘나’의 서술로 진행된다. “나는 초등학교 교장 자리에서 퇴직한 지 오년 남짓 된 늙은이이다”라고 소개하며 시작하는 소설은 자조 섞인 고백에 가깝다. 화자 내외는 자식 가까이 살고 싶어 집을 정리하여 서울로 옮기며 ‘비싼 동네의 평수 넓은 아파트’에서 자식과 함께 살고자 하였으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며느리는 친정 엄마를 파출부 부리듯이 하면서 아이 겨우 키워 냈더니 이제 와서 같이 사시자고 하느냐며 노골적인 항의를 표한다.

타협 결과, 학군 좋은 아파트 단지로 옮기고 “우리 두 늙은이가 살 거니까

31) 정미숙 ·유제분, 앞의 논문 참조.

32) 비비아나 A. 젤라이저,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역, 『친밀성의 거래』, 에코리브르, 2009, 397쪽.

작은 걸로 아들네는 네 식구가 살 거니까 사십 평이 넘는 걸로” 공평하게 정하고, 겨우 “우리의 배알, 배짱”이라는 수사를 더해 앞 베란다에서 뒤 베란다는 바라볼 수 있는 앞 뒤 동에 나뉘 살 것으로 결정한다. ‘서로 불빛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살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손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같이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한다.

그러나 마누라가 연락을 하지 않고 음식과 별식을 만들어 찾아가는 횃수가 빈번해지자 자식들은 집에 불을 켜지 않고 ‘촛불’을 밝히고 생활하거나, 어안렌즈로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제 화자 부부는 종전의 부모들의 자식 사랑, 혹은 집착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듯하다. 마지막 장면에 그가 사들고 온 ‘초’는 노부부의 식탁을 위한 장식으로 쓰일 듯하다.

‘그래도 해피 엔드’에는 ‘아파트’를 떠나 서울 근교에서 텃밭을 일구고 사는 노부부, 멋쟁이 할머니 화자가 등장한다. ‘아파트’는 저 멀리에 있는 연금이다.

“아파트 팔아서 떨어질 몇 억이 내 통장에 들어올 생각만 해도 황홀했다. 연금이 있어서 궁색할 것 같지는 않았지만 몇 억은 처음 만져 보는 거금이었다. 이 아름다운 집에서 나는 신혼시절처럼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만들고 남편은 텃밭을 갈아 싱싱한 채소를 공급하면 생활비는 거의 안 들리라. …… 목돈과 잘 자란 지식들을 둔 오후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떠올랐다.(269)

아파트를 팔고 서울 근교에 살면서 새로운 노후를 건강하게 건설하는, 지난 삶을 성실하게 산 노부부를 만나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화자는 베스트드레스라 불릴 만큼의 의상센스를 갖추고 또한 젊게 보이려고 뽀족구두를 신고 다니는 ‘미국에서 온 할머니’ 같은 세련된 용모와 매너를 갖춘 할머니이다. 그러나 화자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남은 생을 젊고 건강하게 보내려 한다. 이 근본 동력원이 아파트 활용에 있다. 아파트 문화는 주변으로 확산되며 아파트 너머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박완서는 모두가 공간의 주체가 되는 건강하고 역동적 삶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외부, 내부, 주변을 조감하며 아파트 생활의 현재와 미래상을 제시한다.

V. 나오며: ‘아파트’를 나오며

본고는 박완서 소설을 대상으로 ‘아파트’ 표상과 젠더 양상의 관계를 고찰하

였다. 박완서 초기 소설에 표상된 아파트는 한국적 근대화의 바로미터이다. ‘아파트’는 전근대와의 결별, 구세대적 생활방식과의 분리, 차별을 표방하면서 근대화의 표상이 된다. 이로써 가족/아파트, 전통/근대, 구세대/신세대, 대가족/핵가족, 동일자/타자로 구분되며 긴장과 대립의 구도로 배치된다. 아파트는 ‘복부인’의 등장(『낙도의 아이들』)과 함께 여성주도형의 공간이 된다. 복부인의 등장은 주부의 위상을 제고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변칙적 재산 증식방식은 가부장의 위치를 축소하고 나아가 성적윤리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치닫는다. ‘도시-아파트-여자-세련’ ‘시골-땅덩이-아내-미련’으로 이분되며 도착적 부부/인간관계를 선언하는 것으로 강화된다.(『주말농장』) 실상,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여성은 행복하지 않다. 노인들은 골방의 주변적 존재로 밀려나며(『황혼』) 남성들은 산업화 시대의 경제역군으로 밖에서 지쳐 가는 사이에 여성은 그 공허를 아파트 꾸미기에 소모하고 나아가 닮은 것에 싫증을 내면서도 또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신경증을 보인다.(『닮은 방들』) 마침내 이웃 남자와의 ‘죄의식도 쾌감도 없는’ 성적 일탈로 치닫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식을 포기할 수 없는 안간힘을 지속하려(『포말의 집』)황홀한 성적일탈을 감행하고자 그것마저 되지 않는다.

중기 소설은 아파트 내부의 발견. 내부성의 천착이 두드러진다. 폐쇄와 개방이라는 아파트 공간의 양가적 측면을 아우르며 아파트가 이웃 간의 단절과 소외, 익명성을 표상하기 보다는 이웃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울음소리』와 『저문 날의 삽화』는 ‘방음’이 잘되지 않는 아파트 구조적 특성과 이웃 간의 ‘공유공간’을 통하여 이웃의 삶을 알고 내 삶을 성찰하는 가운데 생성적인 부부관계, 젠더를 새롭게 재구성하기를 촉구한다. 아파트 층수와 섹슈얼리티, 젠더양상을 탐구한 것이 돋보이는 데, 이른 바 불륜의 장소이자 범인들인 은닉처로 활용될 수 있을 법한 ‘아파트’는 70년대 반사회가 왕성하게 열리던 시절, 남성에게는 불리한 공간이다.(『무중』) 아파트 사이의 단절은 ‘인터폰’을 통해 이어지기도 한다.(『로열박스』) 『가(家)』와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은 아파트의 장소성을 통하여 아파트가 우리들의 공간, ‘집’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후기 소설에 이르면 박완서의 아파트 표상은 일층 새로워지고 깊어진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아파트 활용방안과 세련된 젠더양식을 탄력적으로 모색한다. ‘아파트’가 자신의 정체성을 냉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매개물로 등장한다는 점

이 주목된다. 신/구세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현실적 등가물인 아파트는 이제 진정한 주체복원을 도모하는 활용처, 자아실현의 기반, 노인의 연금, 그리고 독립된 공간으로 드러난다. 고급 아파트가 결혼의 이데올로기를 봉합하지 못하고, 진정한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티타임의 모녀』) 한다. 나아가 아파트-조강지처-결혼으로 이어지는 등식을 포기하고 아파트 판돈을 유학자금으로 활용하는 여성이 등장한다.(『공놀이 하는 여자』) 아파트 삶이 가지는 공간 권력에 익숙해진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은 골방에 사나 권력관계를 조절하고(『마흔 아홉 살』)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이제는 두 노인 부부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는 과정에 있다. 아직은 ‘미국에서 오신’ 할머니처럼 낯서나(『그래도 해피 엔드』)아파트를 팔아 여유롭게 살고 전원생활의 멋을 만끽하고자 하는 새로운 아파트 주변 향유그룹을 만나는 것도 신선한 일이다. 아파트 문화는 주변으로 확산되며 아파트 너머의 풍경 바꾸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박완서는 아파트와 아파트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삶과 공간의 주체가 되는 건강하고 역동적 삶을 제시하고 있다.

▣ 주제어 박완서, 아파트, 표상, 젠더, 주거 공간, 공간, 장소, 주체

참고문헌

기본 자료

-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1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08.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2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3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 문학동네, 2006.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4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06.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5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문학동네, 2006.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6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2009.
 박완서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 지성사, 2007.

단행본 및 논문

-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1997.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김서영, 『프로이트의 환자들』, 프로네시스, 2010.
 김정자 외,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집 그리고 가족의 문제』, 우리문화사, 1992.
 김재관·장두식, 『문학 속의 서울』, 생각의나무, 2007.
 류은숙, 「여성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 연구—1980년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No 7, 2002.
 박철수, 『아파트의 문화사』, 살림, 2006.
 박철수, 「대중소설에 묘사된 아파트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건축학적 해석」,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1호 2010. 1.
 서울대학교 관악초청강연, 『박완서—문학의 뿌리를 말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2011.
 오창은, 「아파트 공간에 대한 문화적 저항과 수락—박완서의 「닭은 방들」과 이
 동하의 「홍소」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33집, 200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1.
 이진경, 『근대적 주거 공간의 탄생』, 소명출판사, 2000.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2009.

-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 정미숙·유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 시학」, 『한국문학논총』 54집, 한국문학회, 2010. 4.
- 조갑상, 『이야기를 걷다』, 산지니, 2006.
- 최영숙, 「1970년대 한국 도시소설 연구」, 창원대대학원 박사논문, 2007.
- 하창수, 『집의 지형』, 신생, 2007.
- 하창수, 『집의 지층』, 신생, 2007.
-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 2010.
- Judith Butler,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 V. 줄레조, 길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 비비아나 A. 켈라이저,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역, 『친밀성의 거래』, 에코리브르, 2009.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요시하라 나오키, 이상봉 신나경 역, 『모빌리티와 장소』, 심산, 2010.
- Yi-Fu Tuan,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출판사, 1995.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Apartment and Gender Style in Park Wan-seo's Novel

Jung, Mi-sook

In Korea, 'apartment' is a representative residential space that began to be formed in earnest as the country was modernized. Now, the apartment is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lives of people in this nation. So it's recommendable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search on what the apartment really represents beyond what it just means, a residential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relations between the representation of apartment and gender style are suggested in novels by Park Wan-seo who kept concentrating herself on the sociology of apartment.

In her early novels, Park Wan-seo suggests what a nonsense the creation of the apartment was and what a shock the outer appearance of the apartment complex was. From the novelist's view, apartment is not a house, but a space for ownership and a sign of heightened social status. According to her, the apartment becomes the proper place of disagreement and loss as even values of life are normalized. In those early novels, the apartment is depicted as a representation of abnormal wealth expansion and mundane success. It is also considered as weakening the conventional roles and ethics of married couples and showing a perverse gender style that diverts from normal sexuality.

The writer's mid novels focus mainly on discovering the inside of the apartment, that is, internality. In this case, internality implies correlations between the interior structure of the apartment and the lives of people living there. In her mid novels, Park Wan-seo defines the apartment has both closeness and openness, and calls for recognizing the apartment as a space

or place where we share with neighbors and at the same time reflect on ourselves, not as a representation of separation and isolation among neighbors and anonymity. The novelist also strongly reveals her feminist view and stresses gender restructuring.

In Park Wan-seo's later novels, how the apartment should be objectified and utilized becomes more important. Notably, the apartment is depicted as a medium that allows individual people to recognize and extend their identity. As found in those later novels, the apartment is utilized as a place for the restoration of the true subject, basis for self-realization or a pension for old people, ultimately becoming where a different, better gender style that is beyond discrimination between the old and new generation, men and women or the young and the old is sought.

■Key-words: Park Wan-seo, apartment, representation, gender, residential space, place, subject

이 논문은 2012년 5월 10일 투고되어 2012년 6월 6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2년 6월 6일 게재 확정되었음.
